

Meritz 조선/기계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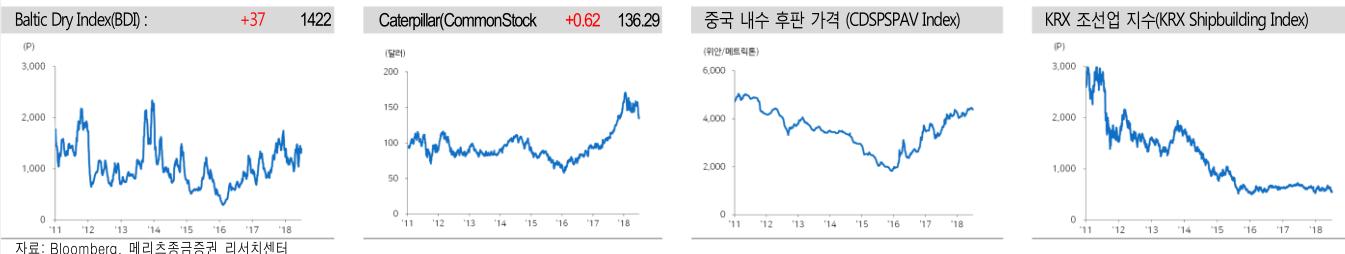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6,861.2	16.3	99,200	-2.7	-14.1	-21.3	3.4	69.1	33.1	0.5	0.5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521.2	21.5	339,000	-4.1	-12.1	-20.4	-11.0	4.6	3.8	0.6	0.5	14.1	14.7
현대알렉트릭	665.4	4.4	65,200	-6.9	-26.7	-19.4	-42.8	62	54	0.6	0.5	9.3	9.7
현대건설기계	1,293.8	8.6	131,000	-7.1	-18.4	-24.1	-22.5	83	62	0.9	0.8	11.7	13.9
삼성중공업	4,422.6	16.8	7,020	-1.7	-6.0	-7.4	8.5	44.3	22.0	0.4	0.4	1.0	1.9
대우조선해양	2,723.0	4.0	25,400	-5.9	-5.4	-4.5	82.7	7.6	11.1	0.8	0.7	10.9	6.8
현대미포조선	1,680.0	9.0	84,000	-2.1	-8.7	-11.9	6.7	18.1	13.1	0.6	0.6	3.6	4.8
한진중공업	309.7	6.2	2,920	-2.0	-10.6	-5.7	-11.8	58.7	14.7	0.4	0.4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232.4	22.0	82,200	-8.3	-34.2	5.7	51.1	14.5	14.1	2.0	1.8	14.6	13.3
두산밥캣	3,117.7	25.6	31,100	-2.8	-8.4	0.3	-13.1	11.4	10.7	0.9	0.8	7.4	7.6
현대로템	2,171.8	7.5	25,550	-8.9	-36.5	61.7	36.3	33.0	22.5	1.5	1.4	4.5	6.3
하이儿女코리아	333.5	48.0	24,500	-4.3	-19.5	5.8	8.9	11.1	10.1	0.9	0.9	8.8	9.0
성광벤드	314.6	17.1	11,000	-5.2	-15.1	0.5	10.2	972.4	39.4	0.7	0.7	0.1	1.8
태광	284.9	12.9	10,750	-9.3	-16.3	-8.1	-10.8	64.2	31.3	0.7	0.7	1.0	2.1
두산중공업	1,698.6	13.5	14,500	-7.3	-22.3	-5.2	-5.5	17.8	9.3	0.5	0.5	3.4	5.5
두산인프라코어	1,915.0	16.4	9,200	-4.6	-12.0	8.5	5.9	6.4	5.9	1.0	0.9	16.6	15.5
두산엔진	136.4	4.2	4,140	-0.5	-17.0	6.0	61.1	-8.1	-12.8	0.3	0.3	-2.5	-2.9
한국항공우주산업	3,996.5	13.3	41,000	-0.5	-7.6	-16.5	-13.6	31.5	23.9	33	29	10.5	12.9
한화테크윈	1,170.9	11.9	22,500	-4.1	-32.7	-21.5	-36.7	27.0	154	0.5	0.5	1.9	3.3
LIG넥스원	839.3	8.8	38,150	-4.7	-23.9	-19.3	-36.2	17.4	11.7	1.3	1.2	8.2	11.1
태웅	298.1	4.5	14,900	-8.0	-20.5	-20.1	-23.0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이티	169.2	3.7	6,270	-6.4	-2.3	-17.0	24.2	-46.1	66.0	2.0	1.9	-4.3	3.1
한국카본	268.2	12.4	6,100	-3.0	-1.8	1.8	13.8	33.2	17.3	0.8	0.8	2.5	4.7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현대重, 해양사업본부 조직·임원 3분의 1로 축소 개편

현대중공업은 이달 1일자로 해양사업본부 17개 조직을 6개 조직으로 통합했다고 알려짐. 동시에 임원인사를 단행해 임원도 약 1/3로 감원했다고 알려짐. 또한 해양기본설계부와 프로젝트기획부를 신설해, 신설된 부서는 해양 프로젝트 견적을 내는 역할과 해양 일감 수주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EBN)

Cosco seals OOCL takeover a day before deadline

중국 Cosco Shipping은 작년 7월부터 진행해온 63억달러 규모의 컨테이너선사 OOCL의 인수작업을 마무리했다고 알려짐. 이번 인수로 Cosco는 세계 3위 컨테이너선사로 거듭나며, 선대 규모는 400척을 상회한다고 알려짐. 합병 후 선복량은 약 290만TEU로, Maersk Line과 MSC 다음 순위임. (TradeWinds)

VLCC demolition tally hits 29 in first half of 2018

2018년 상반기 기준 VLCC는 29척, Suezmax급 17척, Aframax급 25척이 폐선되었다고 알려짐. 현 시점까지 올해 VLCC의 평균 운임은 일 11,327달러이며, Suezmax는 일 7,020달러, Aframax는 7,899달러로 알려짐. 또한 동기간 벌크선도 VLOC 7척을 포함해 총 32척이 폐선됐다고 집계됨. (TradeWinds)

Seadrill emerges from chapter 11

시추업체 Seadrill은 24억달러의 무담보 채권 등을 포함한 Chapter 11(파산보호 신청)에서 성공적으로 탈피했다고 알려짐. 채무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 결과로 Seadrill은 21억달러의 현금과 만기가 2022년인 57억달러의 은행 담보대출, 2025년 만기인 8.8억달러의 담보여음을 보유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Macleod shares sums and logic of Frontline's scrubber play

선박왕 John Fredriksen이 소유한 Frontline의 관계자는 환경규제에 대응해 대형 선박의 경우 스크러버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함. 2020년에 저유황유와 기존 연료의 스프레드는 톤당 350달러로 전망되며, 스크러버 장착 후 기존 연료를 사용하면 연 5~6백만달러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TradeWinds)

Russia seeks huge FSU for Kamchatka

러시아 Yamal 프로젝트는 Kamchatka 반도에 35만CBM급 FSU(부유식 저장설비)을 설치하기 위해 조선소와 건조상담을 진행 중으로 알려짐. 해당 선박이 건조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FSU로, 북극 항로를 통해 중국 쪽으로 LNG를 수송해 Kamchatka 반도에서 환적 후 최종 목적지로 수송될 계획임. (TradeWinds)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7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은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7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